

#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 에코아나키즘의 이론과 사상배경

구승희

동국대 강사·환경윤리

아나키즘 혹은 아나키스트라는 말이 오늘 날과 같이 일정한 정치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인 것은 19세기 초반부터였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이 용어는 혁명을 선동하고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비방하는 데 효과적인 신조어로 등장했다.

긍정적인 의미로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로 불렀던 최초의 사람은 프루동이다. 그는 아나키를 "무질서나 혼돈이 아니라 여하한 형태의 지배자도, 주권자도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프루동에 의하면 아나키즘은 "인간에 의한 임의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법칙의 권위, 즉 법적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이다."

### 왜곡돼온 '아나키' 개념

19세기 말엽에 접어들면서 아나키즘은 유럽에서 현저하게 그 세력을 잃어버린다. 바쿠닌과 마르크스파에서 갈라져 나와 라틴-가톨릭 계열의 유럽 여러나라에서 소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던 1870년 이후 몇 년간을 고비로 아나키즘은 유럽 노동운동의 역사, 그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것은 파리 공민의 실패와, 인터내셔널의 붕괴 이후에도 계속되는 아나키스트들의 내부 분열, 그리고 대안없는 과격주의로 인해 아나키즘이 당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아나키즘이 이런 비현실적인 꿈으로 간주된 이유는 19세기의 아나키스트들의 대안이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론에 비해 치밀한 실천적 조직력을 갖지 못했던 것도 한 원인이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은 당시 시대정신이던 마르크스주의적·사회주의적 노동운동 이념이 아나키즘을 악의적으로 왜곡했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의 개인이란 본래 사회적인 속성을 가지며, 지배서열 권위없는 공동체내에서 개인들의 최상의 사회적 본성이 실현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집단간의 필연적인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현대 환경문제는 이해를 추구하는 현대산업의 개인과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국가간의 갈등의 산물이라고 할 때, 아나키즘은 환경문제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현재의 '문명'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처방을 얻으려고 한다면, '소비를 최소화하는 일' 말고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러나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이주 복잡한 사회-경제적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최소 소비사회'에 알맞게 변경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정치학(Ökopolitik)인데, 한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시스템을 환경론적 생태학적 지식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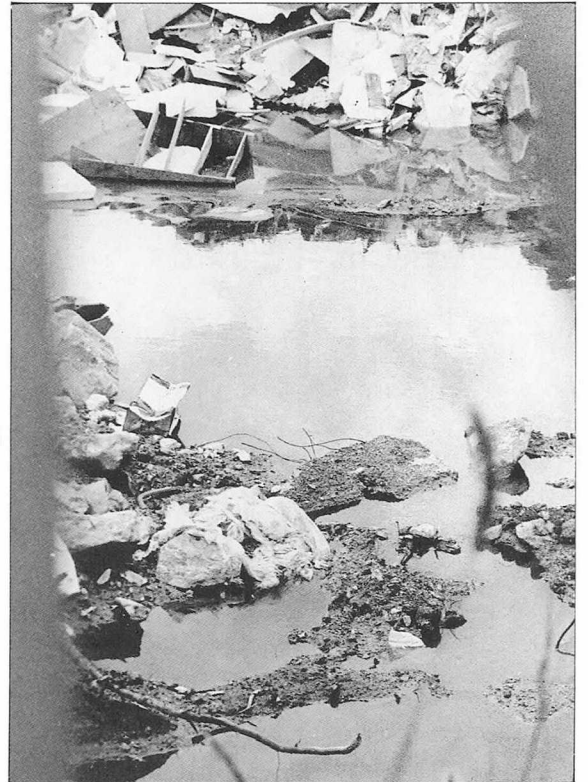
과격한 환경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인간 도덕의 중요한 척도였던 정의, 인간의 존엄, 인격적 가치, 나아가서 인간의 고유한 권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만 생태유포피아(Ökonomie)는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순전히 "정치적 상상력에 의한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이다."

### 협동교환과 참여의 경제

그러면 과학과 기술과 자본의 강력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에코파시즘(Ökofaschismus)으로 되지 않을 어떤 대안은 없을까? 나는 그것을 "에코아나키즘"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에코아나키즘은 상호부조에 의한 자주관리 사회(Self-Management Society)의 이론이다. 자연을 배려하는 마음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필요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생산양식이다.

자연을 배려하는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연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생산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가능하다. 그것이 아나키즘의 "협동교환과 참여의 경제"이다. 탈중심화된 아나키 공동체에서는 가능한 한 규모가 작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적 부담을 덜어준다. 자주관리 사회는 사적인 기술의 활용을 아래로부터 통

현대 환경문제는 이해를 추구하는 현대산업의 개인과 그를 관리 통제하려는 국가간 갈등의 산물이다. 아나키즘은 환경문제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에코아나키즘은 상호부조에 의한 자주관리 사회의 이론이다.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공동체 예술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나키즘이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제하고 모든 사적인 개인적인 기술을 사회적 기술로 환원한다.

생산을 협동적으로 조직하고, 권력을 급진적으로 탈중심화함으로써 자주관리 아나키 공동체에서는 기술의 남용과 오용을 막고, 은밀하게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소집단의 과학적 탐구를 사회적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다.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기술통제에 개입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권력 자체인 것 같지만, 사실상 (국가)자본가의 개입에 다름 아니다.

국가자본주의의 개입은 결국 협동적 생산과 참여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국가자본주의의 개입은 기술생산자와 기술소비자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지 못하고, 강제에 의해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국가는 언제나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대변인 구실을 했다. 이와 반대로 아나키즘은 이들간의 직접적인 중재·조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자주관리 사회를 향하여

이런 식으로 자주관리 아나키 공동체에서 만 공해나 자연환경, 기타 자연생태계에 해

가 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물질적 풍요를 이룩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회적 개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적 개인 개념을 기저에 깔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

성장과 이윤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생산지상주의를 거부하는 자주관리 사회는 이런 야만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이 세계의 인간·자연·환경을 동시에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공동체 예술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주관리 자유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의존과 직접적인 교환관계로 복원함으로써 익명성과 이기적인 시장경제를 해소한다. 이로써 자주관리 사회의 개인은 다른 자연계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책임을 실천할 수 있다.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서구의 자본주의적 소유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의 관점은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 아나키즘의 반환원론적 태도는 '개인 개념' '재산 개념'을 수정하여 '사회 공동체'와 '자연공동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론이다. ❖